

수백억대 중복분양 사기 뒤 조폭·사채업자 있었다

시행사에 20억 빌려주고 46억 받는 등 수년간 수상한 거래 광주 서부경찰, 정황 포착... 피해자들 “수백억원 흘러갔다”

광주 농성동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 사건의 이면에 전국구 조폭 두목급 인사와 사채업자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각각 545명, 380억원(경찰집계)에 이르는 농성동 골든힐스 오피스텔 분양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시행사 임직원과 시행사 측이 지역 조폭, 사채업계 큰손들과 수년에 걸쳐 수상한 거래를 해온 정황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되면서다.

분양사기 피해자들로 꾸러진 비상대책위가 “조폭과 큰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역대급 분양사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하며 해당 인사들의 실명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온 것을 감안하면, 경찰이 확보한 자금거래 내역이 베일에 싸인 분양사기의 전모를 풀어줄 열쇠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우선 불법 사채업을 해온 혐의가 뚜렷한 인물에 대한 신병처리를 수일 내로 마무리한 뒤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대가 워낙 거물급이어서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서부경찰은 분양사기 혐의로 구속된 시행사 대표 박모(56)씨와 시행사 측에 법정이자율을 넘어선 고리대부업을 일삼은 광주지역 재력가 A씨에 대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법무부와 검찰의 민간 협력기구 성격인 법사위위원 광주지역연합회 소속 위원이자 광주지역 경찰서 전직 민간협력위원으로 시행사 대표 박씨 측에 최근 3년

여간 수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을 빌려주고 46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계좌를 통해 36억원가량, 각종 채권 등으로 10억원가량을 받아채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혐의에 대해 “대부업법에 정한 등록절차없이 무자격으로 불법 사채업을 일삼았으며, 시행사 대표 박씨를 상대로 법에서 정한 이자율(연 27.9%)을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 재력가 A씨는 최근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비대위 측에 “시행사 측으로부터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되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의 다음 목표는 지역 폭력조직 C과 부두목 B씨다. B씨도 시행사 측이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자금 압박을 받은 당시 3억원가량을 빌려주고 무려 9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문제는 다음 단계부터다.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이 워낙 거물인데

다 불법성은 물론 구체적 혐의나 피해 진술 또한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인물들이 시행사 대표 박씨 측과 개별적으로 수십억원을 거래한 사실이 포착된데다 분양사기 비대위 측이 “진짜 몸통은 이 사람들”이라고 지목하며 관련 증거와 진술을 쏟아내고 있어 경찰 입장에선 그대로 덮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경찰 간부들 사이에서도 이들을 보는 시선이 ‘악덕업자’, ‘피해자 가능성도 있다’는 식으로 갈린다.

비대위 측이 ‘사채업자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인사는 D씨다. 운수업계에 오래 종사해온 D씨는 중복분양 사기의 무대개된 오피스텔 부지를 박씨에게 팔아치운 인물로, 비대위 측은 “박씨가 9년전에 산 전 주 땅, 강원도 땅 모두 D씨 명의로 돼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 측은 D씨 부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 측에 수차례 계좌압수수색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D씨는 “2012년엔 박씨에게 40억원을 주고 부지를 판 뒤 사업에는 관여

하지 않았다”며 연루 의혹에 대해 불쾌함을 표시했다. 경찰은 D씨에 대해 “박씨와 사업상 관련된 인물로 여겨지나 현재 혐의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에 발을 들여 수십억원대의 부를 일군 것으로 알려진 폭력조직 E과 부두목 F씨 역시 수사 과정에서 분양사기 시행사 측과의 뽕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시행사 대표 박씨 측에 40억원 가량을 대출해준 것이다. F씨 역시 “최근 수년간 무등북으로 박씨에게 돈을 건넨 건 맞지만, 회수한 돈은 빌려준 금액과 동일한 수준인 40억원 정도”라며 “고리로 시행사 대표 박씨를 쥐어짠 의혹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2~3년 동안 사채업자들에게 수백억원이 흘러갔다”는 피해자 주장이 무리는 아닌듯하다. 수상한 거래내역이 포착된데다 박씨가 사채관련 내용을 기록한 장부가 어딘가 있다고 하니 강력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부서관들 편법 장학금 출석 현황 허위 작성 초당대 부실운영 의혹 조사

무안 초당대가 육군 부서관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학과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부 등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0일 교육부와 초당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A 교수가 군사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부서관들의 출석 현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강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올 해 3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학기 중 6일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이 전원 수강한 것으로 출석부를 작성하는가 하면, 강의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했다는 게 진정 내용의 것으로 전해졌다. 3학년짜리인 A 교수의 과목은 한 학기에 45시간 중 2/3인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학점이 인정된다.

초당대는 지난 2013년부터 육군 공병학교와 계약을 맺고 군사행정학과 과정을 운영하며 소속 부서관들이 장성 모 부대에서 학위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평점 80점(B) 이상 취득 시 대학교 육군에서 각각 등학금의 50%씩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학교측은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교육부가 관련 자료를 갖고 조사중이며 학교측도 자체적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 과정을 진행중”이라면서 “A 교수가 군부대 장교 등의 안내로 부대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출입 기록이 남지 않았거나 일부 수업은 학생들과 조율, 수업 날짜를 조정해 강의를 진행했다는 답변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 시행사 대표 오늘 공판

광주 농성동 오피스텔 중복 분양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지엔디도시개발 대표 박모(56)씨에 대한 공판이 21일 오전 10시20분 광주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은 국선변호인에서 사설변호인으로 변경된 뒤 처음 열리는 것으로, 공판에서는 공사사실 인정 여부, 증거 동의 여부, 핵심쟁점 정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씨는 2012년 3월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들어서는 482세대 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지난 5월까지 계약해지·미분양 물량을 545명에게 중복 분양해 38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준공 전에는 피분양자들이 중복계약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22㎡ 규모 1가구당 7000만~8000만원에 거래되던 오피스텔을 4000만~5000만원으로 할인해 피해자들을 끌어 모았다.

회사 소유분인 만큼 신타사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나 임직원 계좌 입금 또는 현금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중국인유학생들 “선비 체험해요”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원장 장석주)와 광주 광산구(청장 민형배)는 20일 월봉서원 강수당에서 상호우호교류 협약식을 갖고 광주에 유학 온 중국유학생 30여 명을 초청해 ‘조선시대 선비의 하루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최현배기자 choi@

아무나 죽이려고...목포 ‘묻지마 살인미수’ 영장

**아파트 현관문 33곳 열어보고
열린 문 침입 범행 20대 검거**

추석에 문이 열린 이웃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혼자 죽기 억울하다”며 일면식도 없는 70대 노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목포경찰은 아파트에 침입해 집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박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추석인 지난 15일 오후 1시40분께 목포시 상동 한 아파트에 침입해 화장실에 있던 집주인 A(여·70)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발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추석날 가방에 흉기를 담아 집을 나선 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옆동에 현관문이 열린 A씨의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직전 문이 열린 집을 찾기 위해 현관문 33곳의 잠금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추석인데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죽고 싶었다. 나 혼자 죽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박씨가 지난 5월 사직한 이후 하루 10여 시간씩 폭력적인 게임에 빠져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에 빠진 박씨는 사직서를 낸 이후 다른 사람들의 접촉도 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력적인 게임에 빠진 박씨가 아무나 죽이려고 했던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알바할 때 열쇠 복사해 둔 빼내

○...아르바이트 당시 미리 복사해둔 열쇠를 이용해 심야시간에 전에 일했던 가게에 들어가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을 야금야금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2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정모(20)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1시55분께 광주시 동구 노모(24)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5만원권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142만원을 훔친 혐의.

○...예전 노래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정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소매만을 훔쳤는데, 경찰은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업주의 신고로 덤미를 잡혔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경,공매 NPL 컨설팅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변 터널식세차시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평가 12억7천4백 ▶ 최저가 12억7천4백
- ★ [상가] 광주 남구 월산동 동강오피스텔 1층 건물 476㎡ 대로변 전시장 판매장 금융매장추천 감평가 15억 ▶ 최저가 10억5천4백
- ★ [상가]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10층중 10층 스키아라온지 상가 483㎡ 카페,7080, 맥주전문점 추천 감평가 8억7천7백 ▶ 최저가 4억9천1백
- ★ [토지] 남양 신도시 중앙공원 중심상업지구 대지 439㎡ 조망좋은 상가, 오피스텔 건축 추천 감평가 8억6천5백 ▶ 최저가 6억6백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산단 평동역 인근 기계기구포함 토지 5,895㎡ 건물 2,816㎡ 감평가 29억5천5백 ▶ 최저가 21억5백
- ★ [토지] 나주시 대호동 답 3,379㎡ 2종일반주거 동산대인근 주택단지 건축추천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5천7백
- ★ [공정] 담양읍 삼만리 토지 9,902㎡ 건물 2,921㎡ 예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육가공공장 감평가 44억5천1백 ▶ 최저가 31억1천6백
- ★ [상가] 광주 북구 용봉동 교묘빌딩 12층중 6층 건물 327㎡ 감평가 6억4천1백 ▶ 최저가 6억4천1백

투자 추천 물건

- ★ [상가] 광주 북구 용봉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 유동인구많은 ▶ 매매 55억원
- ★ [무인텔] 광주 북구 용봉 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수익 위치좋은 ▶ 매매 20억원
- ★ [상가] 광주 수원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8백만원 ▶ 매매가 17억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 [상가]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2천3백 송18억 ▶ 매매 48억
- ★ [토지] 주월동 EGD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 매매13억원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 매매 50억 (요양병원허가취득)
- ★ [토지]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 480㎡ 업무지원시설부지 코너위치 건폐70% 용적250% 급매가 4억4천 (급매, 조정무)

수익형 추천

- ★ [모텔]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60㎡ 대로변 내외부개조 매매 4억 (용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숙 다수 직영추천
- ★ [상가주택]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5세대 안집 월 440만원 용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 [펜션]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한라산 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자산동 대지 28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용4억5천5천)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매매13억5천
- ★ [상가]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 [상가] 목포시 연산동 롯데수퍼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대단위 아파트단지 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상가주택]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947㎡ 지하1층상가 사무실, 2~4층오피스텔 매매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